

축 사

완도군의회 허 궁 희 의장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양한 해양 자원과 문화 그리고 역사성을 지닌 우리 지역에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유치를 위한 범군민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정책포럼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유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주신 군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렇게 박물관 범군민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정책포럼을 준비하여 주시고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조영택 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시간을 내어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신 목포대학교 신순호 명예교수님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유치를 위하여 관내 기관사회 단체, 언론, 번영회, 향우회, 민간단체 등 136여개의 조직의 대표들로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대식 및 정책포럼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완도는 1200년 전 동아시아 해양경제를 이끌었던 장보고 대사와 해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순신장군의 활약의 중심지로 해양 역사성을 갖고 있으며, 천혜의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생물종이 서식하

고 있는 명실상부한 전국 제1의 수산 군입니다.

또한, 21세기를 선도할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국내 최대 규모인 국립난대 수목원 등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해양관광 거점 도시 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완도군 전역이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해양자원 등 완도군의 장점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도는 수산자원, 해양치유, 각종 해양 연구시설 등 전남 어느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적의 입지를 갖고 있으며,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으로 해당 시설의 연구와 업무 수월성 등 최적의 입지까지 구현할 수 있는 완도군에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이 건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박물관 유치와 건립까지는 타지자체와 무한한 경쟁 등 많은 역경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군민의 하나된 힘이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준비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물관 유치 성공 여부는 행정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민관의 구분 없이 우리가 하나로 뭉쳐 다같이 노력할 때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장보고 대사의 후예처럼 진취적인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이 아주 강합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는 고향의 일이라면 한결같이 뜨겁게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든든한 30만 향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군민들과 향우들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우리 완도에 유치합시다.

아울러 힘차게 출발하는 박물관 범군민 추진위원회는 구성적 측면에

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다방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완도군의 홍보와 관광객 유치 그리고 왜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이 완도에 유치될 수밖에 없는지를 항상 대내외적으로 알려주시고 기관사회단체의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박물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민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이루어진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범군민 추진위원회 발대식과 정책포럼의 계기로 박물관이 반드시 우리 완도에 건립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완도군의회회의장 허궁희